

본 스크립트는 KERIS에서 운영하는 영어스크립트 제작봉사단(OES)의 영어재능기부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 번역자 : 신동규(한국외대), 김현주(연세대), 김선우(한국외대), 박지희(이화여대)

SDF2014

* 연사: 스티븐 모팻 & 수 벌츨/ Steven MOFFAT & Sue VERTUE

* 소속/직함: TV 시리즈 “셜록(Sherlock)” 공동 제작자
TV series “Sherlock” Co-producer

* 연설: “셜록 홈즈, 다시 태어나다: 혁신적 지혜의 귀환”
“Reinventing Sherlock Holmes: The Return of Innovative Wisdom”

(Time Code: 18:30)

김성준: 뭐, 왜 그렇게들 웃으시나요?

제가 좀, 복장을 한번 다시 새로 해봤습니다.

이 모자와 이 복장 혹시 누군지 잘 아시겠습니까?

김성준: Well, what's with all the laughing?

I decided to wear something new today.

Do you recognize this hat and this costume?

요즘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죠.

영국 BBC의 인기 드라마 <셜록>의 주인공 셜록 홈즈의 복장을 제가 지금 하고 나왔습니다.

It's quite popular these days.

I'm wearing the clothes of Sherlock Holmes, the star of the popular BBC series *Sherlock*.

이 정도면 한 번 셜록 홈즈 출연해 봐도 될 것 같을까요?

고맙습니다, 반응이..... 고맙습니다.

생각했던 것 보단 그렇게 반응이 뜨거운 것 같지는 않은데, 저는 8시 뉴스에 충실하겠습니다.

Do you think I might have a chance at appearing as Sherlock Holmes?

Thank you, well... Thank you.

Well, the audience isn't as excited as I thought, so I should stick with my 8 O'clock News.

왜 혁신적인 지혜 얘기를 하는데 BBC 드라마 <셜록>이 나와야 되는지, 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You probably all know what the BBC series *Sherlock* has to do with innovative wisdom.

드라마를 안 보신 분도 셜록 홈즈라는 소설은, 추리 소설은 다 읽으셨을 테니까.

셜록 홈즈는 그 시대의 탐정으로서 가장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동원해서 수 많은 범죄들을 해결해 온 그런 탐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Even those who do not follow the series must be all familiar with the original stories.

Sherlock Holmes is a detective who solved various cases through ideas that are most creative and most innovative for their own time.

그 시대의 탐정 셜록 홈즈가 오늘날 21세기에 다시 부활해서 드라마로 나와서도 역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적인 생각, 사고 이게 여전히, 여전히 디지털 시대에도 창의적이

고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지혜를 만들어 낸다는 걸 여러분이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드라마가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We can see that the Victorian Age detective Sherlock Holmes is reborn in the current times to think analog, and it still brings about creative and innovative wisdom in the modern era, and I think it is why the series is so popular among the people.

자, 그 드라마 <셜록>, 과연 우선 그 매력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역시 영상으로 보시죠.

Let's look into what *Sherlock* could be the appeal of Sherlock.

Let's watch a video.

(영상)

김성준: 네, 잘 보셨죠.

이 인기 드라마 <셜록>의 제작자 두 분을 이 자리에 직접 모셨습니다.

김성준: Yes, that was the video.

We bring you today two of the producers of the popular series *Sherlock*.

스티븐 모팻 씨 그리고 수 벌추 씨를 이 자리에 모셔서 여러가지 얘기를 한 번 나눠보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We will hear from Mr. Steven Moffat and Ms. Sue Vertue about a few things today.

A round of applause for our guests, everyone!

김성준: 잘 아시다시피 두 분은 공동제작자이자 부부입니다.

나중에 또 그 얘기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마는, 자 우선 반갑습니다.

김성준: As we all know, these two co-producers are a married couple as well.

We'll get back to that later, but first the greetings.

Welcome to SDF.

서울디지털포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까 제가 셜록 홈즈 옷 입은 것 혹시 보셨는지요?

Did you check out my Sherlock Holmes costume?

MOFFAT- We did and we've decided to stick with Benedict for the moment so that's ok.

MOFFAT - 봤죠. 그래도 주연은 여전히 베네딕트니까 뭐 큰 상관은 없어요.

김성준: 저도 뭐 그렇게 시즌4에 나갈 생각은 별로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준: Well, I'm actually not that interested in starring on Series 4 either. Thanks.

특히 오늘이 우연히도 셜록 홈즈를 만든 코난 도일, 아서 코난 도일의 생일, 5월 22일이 아서 코난 도일의 생일이더라고요.

Today, May 22nd, is coincidentally the birthday of Sir Arthur Conan Doyle, the creator of Sherlock Holmes.

그래서 오늘 같은 날 두 분을 모시고 이렇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어서 아주 더 뜻 깊지 않나 그

렇게 생각이 듭니다.

So I think it's truly meaningful that we have brought you to here to have a talk with us.

본격적인 얘기를 한 번 나눠보도록 하죠.

Let's get to the main stuff, shall we?

MOFFAT- I didn't know it was his birthday.

MOFFAT - 그의 생일인 줄은 몰랐네요.

김성준: You didn't, really?

김성준: 진짜 모르셨어요?

MOFFAT- No.

MOFFAT - 몰랐어요.

김성준: 저희 정보가 맞을 겁니다 아마.

김성준: Our information is probably correct.

먼저, <셜록> 드라마가 전 세계 열풍을 이끌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기가 높는데,

사실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드라마의 캐릭터를 선택할 수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셜록 홈즈였는지 우선 그것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죠.

First, *Sherlock* has such a worldwide popularity that there is hardly anyone in Korea who does not know about *Sherlock*,

but considering that there are other characters that might have been the star of a TV series, we would like to hear from you, "Why Sherlock Holmes?"

MOFFAT- Well, we wanted to conquer Korea. That was the main thing.

MOFFAT - 한국을 정복하는 게 주된 목표였어요.

For Mark Gatiss and me who co-created it, we were just Sherlock Holmes' fans, we love Sherlock Holmes. We love the original stories, we are obsessed with them.

저와 공동 제작자인 마크 개티스는 열렬한 셜록 홈즈 팬이었거든요.

원작 소설도 굉장히 좋아하고, 정말 매우 좋아하죠.

And we've always kind of wanted do a Sherlock Holmes series.

전부터 항상 셜록 홈즈를 드라마화하고 싶었고요.

And on one occasion on the train, we admitted the version of Sherlock Holmes with the most fun, was the updated version of Sherlock Holmes, the Basil Rathbone and Nigel Bruce ones.

한번은 열차를 타고 있었는데, 배질 래스본과 나이젤 브루스가 출연한 셜록 홈즈를 업데이트한 버전이 가장 재밌을 거라는 사실에 공감했어요.

And we kept saying to ourselves, someday someone's going to do that again and we'll be really crossed because it should've been us.

그러면서 항상 언젠가는 누군가가 셜록 홈즈를 우리가 영상화하기 전에 선수를 칠 거고 그 때문에 기

분을 잡칠 거라 말했어요.

We had this conversation for years without doing anything.

몇 년간 아무 진전 없이 이런 말만 계속 했지요.

And I happened to mention it to my wife Sue and she came up with the bold and innovative idea- ‘why don’t you do it’.

As you know, ‘yeah’!

이 생각을 제 집사람 수한테 말했더니 대답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놓더군요. “당신이 하지 그래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하게 되었죠!

VERTUE - Because you kept saying, we are talking about it again, we are talking about it again, and you just didn’t do anything about it.

VERTUE – 당신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이에 대해 우리 둘이서 또 이야기하고 또 하는데도 당신은 이에 대해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So eventually we decided to make it.

You said ‘I’m too busy to make it’. And we made it anyway.

그래서 결국에는 제작하기로 결정했어요.

당신은 “그러기엔 너무 바쁘다”고 했는데, 결국은 제작하게 됐죠.

MOFFAT- Yeah.

MOFFAT - 네.

김성준: 결과적으로는 가장 창의적인 사고는 부인이 남편에게 당신 해보지 않겠냐는 얘기가, 그거였군요. 좋습니다.

김성준: So in the end, the most creative thinking is a wife’s suggestion to her husband. OK.

VERTUE - It’s called nagging.

VERTUE – 이런 걸 바가지라고 하죠.

김성준: 그런데 사실, 전세계적으로 우리가 미국 드라마도 많습시다만 범죄 수사 드라마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김성준: Well, actually, there are many American TV series and procedural dramas.

요즘 예를 들어 CSI라든지.

CSI, for example.

그런데 하필이면 <셜록>이라는 드라마가 다른 범죄 수사 드라마와 비교해서 차이점이라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Then what can be said as the difference between Sherlock and other procedural series?

미즈 벌쥬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Let’s hear from Ms. Vertue.

VERTUE - Well, we didn’t actually set out to make a crime series.

I think that's a difference.

VERTUE – 사실 범죄수사물로 만드는 걸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그게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I mean Sherlock Holmes to us is a much more adventurous series with crime, isn't it, as well.

저희는 셜록 홈즈는 범죄에 관한 모험을 다루는 작품이기도 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And also it suits 90 minutes so it's a much bigger event than, it's not a procedural drama.

90분이라는 시간에 걸맞은, 수사 드라마가 아닌 그보다 더 큰 사건이죠.

I think we might get much braver with the shows that we've got, but I mean, it was the original stories as well, wasn't it?

우리가 만드는 작품들 좀 더 과감히 다뤄야 한다고 생각해요. 원작 소설도 그렇지 않은가요?

It was a great writing of that.

I think it as well.

게다가 원작도 이런 쪽으로 뛰어난 작품이기도 했죠.

전 그렇게도 생각해요.

MOFFAT - We have to say the beginning, it's, other detectives have case issue, Sherlock Holmes has adventures.

MOFFAT – 일단 처음부터 다른 형사들은 다룰 사건이 있고, 셜록 홈즈는 모험을 해요.

And that's, it's a different approach.

접근법을 달리한 거죠.

We never ever even used a word crime when we talk about Sherlock Holmes.

셜록 홈즈를 이야기하면서 범죄라는 단어를 한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And Doyle points out that many many of Sherlock Holmes stories, the originals, don't involve crime at all.

도일도 셜록 홈즈 원작 소설 중 많은 작품이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했고요.

김성준: 알겠습니다.

김성준: I see.

소위 모험, 어드벤처, 이런 스토리가 고전의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 스토리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 스토리를 그대로 현대로 가져온 게 드라마 <셜록>아닙니까?

We can then say that *Sherlock* is the result of bringing Arthur Conan Doyle's classic Sherlock Holmes stories full of adventure.

근데 이 드라마를 현대로 가져오면서 고전에 있는 거를 그대로 갖고 오고 싶은 부분이 있었을 거고, 또 거꾸로 이제 현대화한 <셜록>에서는 고전과는 다른 걸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을 텐데, 갖고 오고 싶었던 것, 그 다음에 다른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좀 말씀을 해주시죠.

While adapting the stories on a modern background, there must have been some elements that you wanted to bring forth from the classic stories as well as other elements that you wanted to differentiate in the modernized *Sherlock* from the classic stories.

Which elements did you want to keep and which ones did you want to differentiate?

I think that the first thing that the real breakthrough

was working out about the blogs
nowadays that John write a blog, was before it was a journal.

제 생각에 진정한 첫번째 혁신은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존이 블로그를 쓰지만, 예전에는 일기였죠.

And I think until the blog times if that would've been a hard thing to transfer
but you can keep it very much from John's point of view, I think as well.

그리고 제 생각엔 블로그 시대가 도래하기까지는 이를 전달하는 게 힘들었겠지만

존의 관점을 잘 유지할 수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MOFFAT - There's very little that we couldn't bring.

우리는 거의 모든 것을 가져올 수 있었어요

One of the reasons we thought it was a good idea and we're doing it at the right time is so much **maps on(27:47)**
perfectly.

우리가 그것이 좋은 아이디어이고 적시라고 생각한 이유 중 하나는 모든 게 딱딱 맞아떨어져서였어요.

For many many years people didn't keep journals and then blogs came along
and everyone's got a bloody blog.

수년동안 사람들은 일기를 쓰지 않았고 블로그가 생기면서

모두가 블로그를 쓰느라 혈안이 되었죠.

People used to send telegrams to each other then they got the telephone.

사람들은 서로에게 전보를 보내는 것에 익숙했는데 그 다음엔 전화가 발명되었죠.

Now we have texts.

이제 우리는 문자를 주고 받고요.

We're back at that.

글자로 되돌아간 거죠.

And they even had the war in Afghanistan back just to make it really convenient for us.

그리고 심지어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도 다시 해서 각색이 수월해졌죠.

So we could restage the whole thing in the modern day pretty much with no change.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거의 변화 없이 현대사회에 맞춰 각색할 수 있습니다.

The one big thing, **one that I did two big things(28:16).**

Holmes and Watson is what they called each other in the original stories
as Victorian gentlemen would.

살펴볼 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원작에서 주인공들은 빅토리아 시대의 신사들답게 서로를 홈즈와 왓슨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But we realized that in the modern day they have to call each other John and Sherlock.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서로를 존, 셜록이라고 불러야 더 자연스럽다는 걸 깨달았어요.

Otherwise, they sound like public school boys.

그렇지 않다면 마치 공립학교 학생들 같겠지요.

The other is it makes no sense at all to have that. Where is it, it's gone.

나머지 하나는 예전에 없어진 것들을 유지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The door is gone.

That's spoiled, that.

문이 사라졌죠.

그 점은 참 속상해요.

The number on the door 221B makes no modern sense.

문에 적힌 221B라는 숫자는 현대에 와서는 말이 안 돼요.

It would never had the B outside the door.

문 앞에 B가 있을 리 없거든요.

But we kept that because Mark and I wanted to be photographed next to it.

그러나 저와 마크는 문 앞에서 사진을 찍고 싶어서 그대로 뒀지요.

김성준: 알겠습니다.

김성준: I see.

VERTUE – We're also asked to think that, at the beginning we're asked quite a lot if we're gonna include all the drug taking, which, I mean, we've touched on it now in the series but actually it was never a big deal at all in the original stories, was it.

우리는 또한 초반에 여러 질문을 받았는데

바로 마약 복용을 포함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었어요.

우린 작품에서 이를 다루긴 했지만 사실 원작에서는 전혀 큰 문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People just think it was.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할 뿐이죠.

MOFFAT - Yes, it's become one of the favorite ideas of the adaptors is to make a deal with his drug habit.

후에 원작을 번안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재 중 하나가

셜록의 마약 중독을 크게 다루는 것이긴 하죠.

If you read the stories,

it's only mentioned a few times at the beginning.

원작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작품 초반에만 몇 번 언급된 설정이지요.

And then Doyle obviously realized kids are reading that, and it phased out quite quickly.

보다시피 도일도 어린이들도 이것을 읽는다는 것을 알고

재빨리 수정해서 빼 버렸고요.

Also the connotations of drug taking of Victorian London made you rather exotic individual.

또, 영국 빅토리아 시대에 마약을 했다면 독특하고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었겠죠.

Being a coca these days just makes you an idiot.

요즘에는 코카인을 한다면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 될 겁니다.

So it's a different thing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성준: 알겠습니다.

사실상 본질적으로는 고전의 스토리를 거의 대부분 그대로 가져왔는데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서의 변화는 현대 상황에 맞게 바꾸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김성준: I see.

So essentially, we could say that you actually brought back most of the classic stories and changed some details to suit the modern settings.

MOFFAT - Yes, but they were easy to modernize, it's the point.

네 그렇지만, 요점은 현대화하기 무척 쉬웠다는 겁니다.

It wasn't difficult.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So little of Sherlock Holmes depended it on it being Victorian.

셜록 홈즈 이야기에는 꼭 빅토리아 시대의 특징들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Which is the thing I like to think our series is proven.

저희가 만든 드라마가 이를 반증했다고 생각하고요.

People think of it as very Victorian. It's not.

빅토리아 시대의 특성이 많다고들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Take the Victorian away.

It doesn't change very much.

빅토리아 시대의 요소를 제외하고도

달라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김성준: 알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드라마 왜 셜록이냐고 제가 질문을 했더니 한국을 겨냥한 면도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오리지널 셜록 홈즈라는 드라마는 아주 극히 영국적인 드라마란 말입니다?

김성준: I see.

When I first asked, "Why Sherlock?", you said that certain aspects of it was aiming at Korea as well, but as I see it, the original Sherlock Holmes stories are most British.

배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 캐릭터도 그렇고.

You know, the backgrounds and the characters.

그런데 그게 왜 지금 갑자기 전세계적으로 이렇게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지, 이 시대적인 배경에

서 특별히 이게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유는 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I'd like to ask why this is all of a sudden a worldwide sensation in this particular period of time.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Which one of you would like to go first?

VERTUE – I think the scripts are brilliant, I can say that.

That's my husband.

저는 우선 대본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남편이니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And I think the combination of the, of the two main actors,
the chemistry there I think is just international,

그리고 두 주연 배우의 조합입니다.

그들의 궁합은 국경을 초월해서 즐거움을 주는 것 같아요.

I think everyone sees and gets the adventure and the fun.

사람들은 두 사람의 모험을 즐기며 재미를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MOFFAT – I think also people around the world like it being British.

It's a very British show.

또, 제 생각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영국적이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셜록은 정말 영국적인 프로그램이에요.

If you watch a British show,

you wanted to seem British, you don't wanted to seem Korean.

영국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영국적인 면을 보기 원하지, 한국적인 면을 보고 싶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You've got lots of Korean show of your own.

한국적인 면은 한국 방송을 보면 되니까요.

I think we like seeing other cultures on a television screen. That's fun.

사람들은 TV에서 다른 문화를 보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재미있으니까요.

We want them, they don't want them,

we don't want shows from other countries to pander to us.

우리가 원하는 것, 대중들이 원하는 것은

다른 나라 프로그램에 우리에게 영합하려 하지 않는 것이죠.

We want them to be,

if I watch an American show I want it to be very American.

시청자들은 미국 방송을 볼 때,

전형적인 미국의 모습을 보고 싶어합니다.

Currently the running of episodes of the series 24, do you have that?

여러분은 혹시 지금 방영중인 미국드라마 '24' 시리즈를 보십니까?

And it's all set in London this time and I'm really upset by it.

이번 시리즈는 영국을 배경으로 하는데, 저는 매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I want it to be in LA and stop pretending to be a British series.

저는 그 시리즈가 LA의 모습을 보여주고, 영국 드라마를 따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성준: 그러면은 질문을 사실, 어떤 다른 대답이 나올지 궁금해서 질문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Then, let me change the question to see what other answer we will get.

이런 추리 드라마 또는 수사 드라마 이룰테면 미국 드라마들처럼
굉장히 첨단 장비들이 등장하고 아주 첨단적인, 그런 하이테크 이런 것들이 많이 차용되는 드라
마들이 아주 인기지 않습니까?

In such investigation and procedural dramas, such as the American ones,
much popularity stems from the advanced equipment and state-of-the-art technology they showcase, right?

또 21세기 지금 시점이라는 게 그렇고요.
Also, it gets along with the 21st Century.

우리가 이따가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소개할 예정입니다만.
Well, we would introduce wearable devices and such later on today as well.

근데 사실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 원작에서는 소위 크리에이티브 위즈덤, 이노베이티브 위즈덤
이라는 게 사람의 머리 속에서 나오는 아주 아날로그적인 생각이란 말이죠.

But in fact, in the original Sherlock Holmes stories by Doyle, so-called creative wisdom and innovative
wisdom are the quite analog thoughts out of a human mind.

그런 아날로그적인 생각을 중심으로 하는 드라마가 왜 이 시대에 인기를 끌고 있는 건지?
So, why do you think such series centered on analogue thoughts are so popular nowadays?

(Time Code: 32:36)

MOFFAT - Well, I think we like to see human being be super clever.
I think that's more interesting than watching a computer being super clever.

다들 영리한 사람을 보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영리한 컴퓨터보다는 고도로 지능적인 인간을 보는 것에 더 큰 흥미를 느끼는 것이죠.

We also know that, I hope I'm not defending my fellow guests,
that we know that people are still cleverer than computers.

다른 연사분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려는 건 아니지만,

아직은 인류가 컴퓨터보다 똑똑하다는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So you know, that's, the appeal of Sherlock Holmes
has always being a man who is able to elevate his thinking skills
to almost super human levels.

자신의 사고를 초인적인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

그것이 바로 셜록 홈즈의 매력입니다.

But he tells you how he does it.
He makes it seem possible to almost everybody
who watches Sherlock Holmes.

그런데도 셜록은 항상 어떤 분석을 통해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는지 말해줍니다. 셜록의 시청자라면 모두 자신과
동일한 일들을 해낼 수 있다고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죠.

They don't just trying put the coat on as you did,
they actually try,
they try their hand to make deductions.

아까 사회자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단순히 코트만 걸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셜록과 존은 실제로 추리를 해 봅니다.

They look around the room and try to deduce what's going on.
They fail cause it's more or less impossible.

방 안을 둘러보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추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But they try.
It seems like what Benedict called an achievable super power.

그래도 적어도 시도는 해 보죠.
베네딕트가 말하는 '실현 가능한 초능력'과 유사한 맥락입니다.

And that's fascinating for us
in a way that high-tech machinery can't be.

우리는 이러한 점에 대해 매력을 느끼는데,
이는 최첨단 기술이 도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We might not be able to afford the computer
but if we practice really hard,
we might be able to think like Sherlock Holmes.

컴퓨터처럼 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셜록 홈즈와 같이 사고하는 건
충분히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VERTUE - It is, it's also, it's called an international play along.
Isn't it? They can get involved.

맞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전 세계적으로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도 꼽을 수 있습니다.
열풍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MOFFAT - Yeah.

맞아요.

김성준: 베네딕트 컴버배치 씨 얘기가 나온 김에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Speaking of Mr. Cumberbatch, let me ask you something.

사실 한국에서는 <셜록>이라는 드라마가 나오기 전에는 베네딕트 컴버배치라는 배우는 거의 무명
에 가까웠습니다.

In fact, he was almost obscure in Korean before the advent of *Sherlock*.

이 드라마 하나로 정말 한국에서도 스타가 됐고,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을 했는데 혹시 캐스팅과 관련된 비화, 뒷얘기 이런 건 없을까요?

He rose into stardom worldwide as well as in Korea due to the series, and are there any anecdotes behind the casting?

(Time Code: 34:20)

VERTUE – Well, really before we chose him, he wasn't recognized actor in the UK either.

우리가 캐스팅 하기 전엔 베네딕트는 영국 내에서도 많이 알려진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In fact, when we were filming the first series, we could film in the middle of Trafalgar square and nobody would look at all.

첫 시즌을 제작할 때 트라팔가 광장 한복판에서 촬영을 진행하고 있어도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Martin was better known, Martin Freeman was better known than Benedict was. But nobody knew Benedict was.

마틴 프리먼은 그래도 베네딕트보다는 많이 알려져 있었죠. 그런데 베네딕트는 정말 아무도 몰랐어요.

Now of course we filmed this, about thousands of people standing on the other side of the road.

지금은 물론 촬영을 하고 있으면 길 건너편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서 구경을 하지만요.

He was very well respected that. He wasn't known at all.

In fact, we find it quite hard to get press for the first series for that. Was it?

나중에 가서야 베네딕트가 유명세를 얻게 되었기는 합니다만 당시까지만 해도 무명에 가까웠기 때문에 첫 시즌을 촬영할 때는 구경하는 사람들을 보기 힘들었습니다.

MOFFAT - Yes.

네.

김성준: 시즌 4에도 나오는 거죠?

He will return on Series 4, right?

MOFFAT - Hmm?

네?

김성준: 시즌 4에도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나오는 거죠?

We will see Benedict Cumberbatch again on Series 4, won't we?

MOFFAT - Well, I think Sherlock would be slightly hampered by not having in there. None of the cases would be solved. Yes, Benedict will be in season 4.

MOFFAT - 베네딕트가 없다면 <셜록>은 약간 곤란해질 겁니다

사건도 해결되지 않을 거고요

네, 베네딕트는 시즌 4에도 출연할 겁니다

VERTUE - It'll be called *John*.

아니면 제목이 <존>이 되겠죠

MOFFAT - *John, John Without a Clue*.

<존>, <갈피를 못 잡는 존>이겠죠

김성준: 알겠습니다. 자, 드라마 <셜록> 캐릭터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설정도 재미있는 것들이 있는데 특히나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습시다만,

셜록과 왓슨 이 두 사람의 극중의 관계라는 게 상당히 큰 흥미 거리를 주는 것 같습니다.

I see. Well, there are many interesting elements in *Sherlock* other than its characters, and as we said before, the relationship of Sherlock and Watson in the series sparks a lot of interest.

일단 영상으로 이 두 인물의 관계를 한번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First, we will see the relation of those two on a video clip.

(영상)

(37:27)

김성준: 누구나 저렇게 손발이 척척 맞는 파트너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Everyone would love to have a partner with whom s/he can work hand in glove.

참 저도 부러운데요.

I envy them as well.

셜록과 왓슨의 파트너십, 두분도 저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Do you think that your partnership is as strong as that of Sherlock and Watson?

MOFFAT - I think there are many levels to our partnership that John and Sherlock are not indulged.

저희 부부의 관계에는 존과 셜록 사이로는 충족시키지 못할 단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김성준: 아, 물론 그렇죠.

Oh, of course it is.

일만 갖고 얘기 하자면 어떻습니까?

What about just in terms of work?

아니면 따로 질문을 해 드릴까요?

Or should I ask you two separately?

MOFFAT – No, no, no, wait, we are married, yeah.

아니, 잠깐만요. 우린 부부니까요

VERTUE - It was well. I mean we've worked together a lot of time. We did four series of comedy and we do this. I think there's time when I say to Steven 'can you take day off?' and 'where's your script?' at the same time. But it generally seems to work very well.

괜찮은 편이에요

우린 참 같이 일한 시간이 길죠

코미디 드라마도 네 시즌을 같이 만들었고 지금은 <셜록>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스티븐한테 “하루 쉬면 안 돼?”라는 질문과 “대본 어딴?”라는 질문을 동시에 한 적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대체로 잘 맞는 편이에요.

김성준: 우리나라에는 흔히 하는 이런 조크가 있는데, 남편이 아내한테 운전 같은 걸 가르쳐주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There is a joke in Korea about forbidding husbands from teaching their wives how to drive.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남편이 같이 앉아서 운전 가르쳐 주다 보면 결국은 화를 내게 되고 싸움으로 번지게 되고 뭐 이런다는 얘긴데.

What it means is that when a husband teaches his wife how to drive, he will eventually lose his temper and start arguing with her.

일을 하시면서, 같이 드라마 작업을 하시면서 심하게 다했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나요?

When working together, was there a time when you strongly argued with each other?

MOFFAT - Well, I can't drive so I'm dependent on my wife.

And also with that joke, Korea needs to sort out the sexual politics.

No, no, that's naughty.

전 운전을 못 해서 집사람에게 많이 의존합니다

그리고 그 농담에 관해 하는 말인데요, 한국 남녀간의 이해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겠군요.

아뇨, 장난입니다.

Have we ever, we don't really disagree very much.

We don't, it's embarrassing, but we don't, we really don't disagree about *Sherlock*.

그런데 우리는 별로 의견이 엇갈릴 때가 없었어요.

말하려니까 민망하긴 한데, <셜록>에 관한 의견이 엇갈린 적은 없었습니다.

I mean there's Mark and me and Sue, that's the three of us talking about *Sherlock* and I suppose one of the reasons all works well up is we sort of think same things about it.

Mark's very old friend of mine and my wife, we all get on. It's very amiable.

마크와 저희 부부는 <셜록>에 관해서 토의를 하는데, 서로간에 잘 맞는 이유는 <셜록>에 대한 생각이 비슷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크와 저희 부부는 아주 오랜 친구이고 잘 어울리죠

아주 친하죠

VERTUE - I think when you, you know, when you deliver a script and write a script to deliver to producer, the producer normally has a few hours or day before they could start reading it.

And they can sell me that tomorrow.

대본을 써서 제작자에게 넘겨줄 때 제작자는 보통 몇 시간 내지는 하루 정도 있다가 대본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럼 대본을 승인하는 건 다음날이고요

I get about ten minutes before he delivers it and I have to go and read it.

So that's quite quickie, that's quite fast turnaround.

But now we get along and it's easy.

전 마크로부터 10분 안에 대본을 넘겨받고 읽어야 해요

소요시간이 짧고 굉장히 빠르죠

지금은 서로 익숙해져서 쉽죠

And if somebody has, you know he has a bad day, I have a bad day.

We understand what that means.

Whereas I think lots of partners don't really understand what their other partner does for living.

누군가가 기분이 별로 안 좋은 하루를 보내면 저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죠.

대부분의 파트너들은 다른 파트너의 일이 어떤지 잘 이해하지 못 한다고 생각해요.

Even if they know what their job is, they don't actually know what it entails.

Whereas we know exactly what our jobs entail.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알아도 그게 뭘 수반하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반면 우리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을 수반하는 지 정확히 알죠

MOFFAT - Yes, it's quite nice doing *Sherlock*.

Raising kid is quite stressful.

네, <셜록>을 만드는 건 재밌어요

애 키우는 게 꽤나 스트레스죠

셜록과 왓슨의 관계를 보면은,

한 사람은 어떤 지혜를 만들 어 낼 수 있는 배경을 서포트 해주고,

그 서포트 해준 배경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제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고

이런 서로 상호보완 관계가 있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When we see Sherlock and Watson, don't they have a complementary aspect in which one makes a supporting background for the other to create certain wisdom and the other forms ideas on the basis of the said background?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아이디어를 만드는 데 서포트를 해주고 어느 분이 아이디어를 더 많이 만들어 내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까?

So which of you are the supporter and the idea maker respectively?

VERTUE - Well, I don't do the writing, so you talk.

대본은 당신이 쓰니까 당신이 말해요

MOFFAT - It would be depend on which phase we are at, really.

While we're creating, Mark and I are creating and writing the show, we're doing all the thinking.

작업이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대본을 쓸 때는 저와 마크가 대본을 쓰고 이야기를 만드니 우리가 아이디어를 다 내죠

Then Sue is the one who mainly has that figured out how we will be going to actually make it.
So it's backwards and forwards on any particular day.

It's not, you know there's a somebody different in charge on different days.

그 다음에는 집사람이 그 대본을 이해해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들지를 정하죠

어느 날에나 다 이렇게 서로 주거나 받거나 해요

매일 일을 담당한 사람이 다른 그런 게 아니죠

If it's a creative discussion about the show, probably it's shading towards me of it.

If it's about how we actually engineer this impossible series to be made, Sue will be telling me what to do.

프로그램에 관한 창조적인 토의를 하고 있다면 저 쪽으로 비중이 많이 오죠

이 힘든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해 토의한다면 집사람이 저한테 지시를 하죠

VERTUE - There was a moment you were writing a script, I think Scanlan and you said, "can you get me a jumbo jet?" and I said hold on a second, I'll come back to you.

I came by the second, yes you can have two.

So sometimes it will be whether we can do something before it goes on the script.

한번은 당신이 대본을 쓰면서 내가 기억하기로는 당신과 스캔런이 "점보제트기 한 대 섭외해줄 수 있어?" 하고 질문을 했는데 내가 이때 말해줄 테니 잠깐만 기다리라고 했는데요

잠시 후에 두 대를 섭외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가끔은 대본에 반영되기 전에 실행 가능한 요소를 결정하기도 해요

김성준: 알겠습니다.

I see.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셜록>의 한 장면 보시면서 소위 혁신적인 지혜, 이게 이 드라마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한번 곱씹어 보겠습니다.

Now let's see another scene from *Sherlock* and think about how the so-called innovative

wisdom is used in this work.

(영상)

(43:47)

MOFFAT - Always very clever.

항상 정말 똑똑해요

김성준: 그전에, 영국 사람들이 다 저렇게 빨리 말을 하는 건 아니죠?

Before we move on, not all British people talk that fast now, do they?

MOFFAT - No. Nobody talks that fast.

아뇨,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빨리 말하지는 않죠

VERTUE - He loved you for that speech, didn't he?

저 친구가 저 대사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했죠?

MOFFAT - That was the tough one to do because that's one shot getting up.

You know, it took a few "gos".

That's horrifically difficult because not only there are lots of dialogue and it has to be delivered super-fast to indicate the mighty brain of Sherlock Holmes.

찍기 굉장히 힘든 장면이었는데, 저 모든 걸 한번에 다 찍어야 했거든요

"액션"을 여러 번 해야 했어요

그건 정말 힘든 일이었는데, 독백이 많을 뿐만 아니라 셉록 홈즈의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빨리 전달해야 했기 때문이죠

And it has to be delivered as if it's almost boring because he's already thought of it.

There's nothing there that's easy to learn, because the intuitive leaps Sherlock is taking aren't accessible to an ordinary brain.

또한 마치 그가 이미 다 생각한 것이므로 지루하다는 것처럼 대사를 전달해야 하고요

배우기 쉬운 것은 없습니다

셜록 홈즈가 직관적으로 생각하고 건너뛴 부분들이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죠

I'm sure that Benedict is a bright lad, and he's got an ordinary brain.

It's hard to simulate a super brain when you've only got the ordinary equipment.

It's hard to write as well.

베네딕트도 똑똑한 친구라고 확신합니다만 그 역시 보통의 두뇌를 가졌을 겁니다

평범한 두뇌를 가지고 뛰어난 두뇌를 가진 척 하진 힘들죠

그런 내용을 쓰기도 힘들고요

(Time Code: 44:42)

김성준: 알겠습니다. 뭔가 천재는 말을 좀 빨리 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이 드는 면도 있는 면이 있습니다.

**I see. So, in a certain point of view,
we might think that a genius has to talk fast.**

사실 셜록 홈즈가 굉장히 클레버 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 같이 뉴스를 하는 사람들도 저 정도의 추리력이 있으면

정말 특종도 많이 할 것 같은데, 부럽기도 합니다.

You just said Sherlock Holmes is remarkably clever.

Actually, after I heard that, I am a bit jealous because with the same level of deduction as Sherlock, journalists like I might have better chances at getting a scoop.

이 셜록 놀이라는 게 한국에서 한동안 유행을 했었죠.

This ‘Sherlock Game’ I’ll introduce to you caught on in Korea for a while.

몇 가지 단서만 가지고 장황하게 추리를 해 나가면서

재미를 즐기는 그런 놀인데,

여기서 한번 셜록 놀이를 여러분과 함께 해 볼까 합니다.

**It’s a game of making deductions based on just only a few pieces of evidence
and having fun with the process of deduction.**

I’d like to play it with our guests here today.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해보죠.

**Some people in the audience might not be familiar with this game,
so we’ll move on to each steps of game with my explanation.**

두 분이 행사 전에 아주 수상한 사진을 한 장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몇 분이 저희에게 그 사진의 내용을 갖고 추리를 하는 그런 걸 보내주셨는데
한번 직접 보시죠.

Mr. Moffat and Ms. Vertue here sent me a very suspicious picture.

**Some people made deductions after they saw it and they offered their deductions to us.
Before we move on, take a look at the picture.**

화면에 떠 있나요? 이 사진이 두 분이 보내주신 사진인데,

보시다시피 리모콘하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보이는데.

**Do you see it on the screen? This is the picture from Mr. Moffat and Ms. Vertue.
As you can see, there are a remote control and some other stuff in it.**

먼저 이 사진을 SNS에 띄우고선 사람들의 추리 댓글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 중에서 독특한 추리를 해 주신 두 분을 골라 봤는데,

**Our team, first, posted this picture on SNS
and collected the comments of users making deductions about it.
Among those comments, we picked up two interesting deductions.**

첫 번째가 한정민씨의 추리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서 함께 추리를 해 보시죠.

**The first one is by Ms. Jeongmin Han.
Let me introduce it to you and we'll make deductions together.**

자, 리모콘이 있죠?

이 리모콘을 갖고 한정민씨는 이렇게 추리를 했습니다.

**You'll see the remote control in the picture.
Ms. Han deduced like this.**

리모콘에 써 있는 글자들이 영어인걸로 봐서는

한국이 아닌 영어권에서 찍은 사진 같다.

**First, this picture might be taken in English-using country, not in Korea
because there are English alphabets on buttons of the remote controller.**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침대 시트.

침대 시트가 좀 낡아 보이는 걸로 봐서는

손님을 상대하는 호텔이 아니고 평범한 가정집 이불일 가능성이 크다.

**And I see a bed cover as a background of the picture.
It seems a little bit shabby,
so I can guess it's used in ordinary household, not in hotel for customers.**

이건 뭐 추리를 넘어서 거의 상상력 수준이 아닌가 싶은데.

그 다음에 옆에 보이는 동그란 거.

큰 양초 받침대라고 해석을 하셨습니다.

It sounds more like imagination beyond just deduction to me.

**She also interpreted the round plate next to the remote control
as a big candle holder.**

리모콘 옆에 있는 큰 양초 받침대를 봐서,

양초를 피운다는 건 분위기를 즐기는 사람이고,

상상하기를 좋아하는 감성적인 사람일 거다.

**Back to the game, I can guess the man took this picture
is emotional person who enjoys being in sentimental mood
and to daydream.**

다시 사진을 보시면 사진 전체가 아주 화질이 선명하거나 그려진 못하죠.

이걸 보고 사진의 화질이 썩 좋지 않은 걸로 봐서

오래되고 낡은 구형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이지.

And when I take a look at the picture again,

I can find out that this picture is not in that high definition, and from that clue,

I am able to guess that this picture is taken with an old-model cell phone.

아마 전자기기 작동에 능숙하지 않은

중년이란 얘기야.

**This means the person who took this picture is a middle-aged man
who is not that familiar with electronic devices.**

따라서 결론은, 이 방을 쓰는 사람은 영어권에서 사는 영국의 평범한 가정집에 사는,

아 벌써 답이 나왔나요?

**So, my final deduction would be that the person using a room in this picture
lives in ordinary household in English-using country and uses an old-model cell phone.**

평범한 가정에 사는 구형 휴대폰 쓰는 중년이다.

촛불 켜 놓고 분위기를 즐기는 감성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

스티븐 모팻 씨 같다.

Oh, you already figured out the answer?

**The person who enjoys being in sentimental mood with candle light,
Steven Moffat.**

이런 결론이었습니다.

모팻 씨께서 이 추리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주시죠.

This is our deducer's final guess.

Mr. Moffat, how would you make an assessment on this deduction?

MOFFAT - Well, I didn't take the photograph.
I handed it over to the middle-aged person.

사진은 제가 찍지 않았어요

이 중년인 분께 찍어달라고 했지요

김성준: 사진의 진실이 뭔지는 잠시 뒤에 알아보기로 하고 일단 추리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주
십시오.

VERTUE - It's an interesting deduction.

It's a great game, we don't have this in the UK.

I think we should start it.

흥미로운 추론이군요

굉장한 게임인데요, 영국에는 이런 게임이 없어요

제 생각에 우리도 이런 게임을 시작해야 할 것 같네요

김성준: 별로 맞다고 생각하지.....

You don't think it right, do you?

VERTUE – Some of it, it's right.

부분적으로는, 네 맞아요.

김성준: 맞다고 생각을 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그럼 두 번째 추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디 핀술, 김핀술 씨라고 이름을 붙이신 분이 보내 주신 건데요.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죠, 역시 리모콘으로 시작이 됩니다.

It seems Ms. Vertue doesn't think it correct.

Let's see the second deduction.

ID Kim Pinshule sent this deduction.

Let's see the screen again.

It also starts with the remote control.

오래된 리모콘에 숫자 1을 눌러서 지워질 정도로

고장이 났지만 교체할 마음이 없으니까

전자기기에 관심이 없다. 자세히도 보셨네요.

**Used remote control a lot until number 1 has been deleted,
and not willing to replace it with new one even it has been broken down,
the owner doesn't care electric devices much. You observed details.**

두 번째는, 아까는 양초 틀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해석하시는 분은 굴러다니는 타르트 틀이라고 봤습니다.

**Secondly, unlike the first person who thought the thing is a candle tray,
This person thought it is a tart case which was rolling around the room.**

그래서 제빵에는 관심이 있지만

침대에 올려놓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것 같다.

**So it looks like that the owner is interested in baking,
but put this case on the bed, using it for another purpose.**

아마 재떨이로 쓰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It might be used as an ashtray.

세 번째 단서, 침대보를 보니까

누렇게 때가 타서 빨래를 자주 안 하는 것 같다.

대단한 상상력입니다.

**Third clue, as the bed cloth is dirty and yellow,
the owner doesn't do laundry often.**

Great imagination!

그래서 이 방의 주인은 전자기기에 관심이 없고,

빵을 만들고 싶지만 정작 만들 생각은 안하고,

침대보도 안 빠는 사람.

**In conclusion, the owner of this room is not interested in electric devices,
wants to learn baking without strong will to learn
and doesn't do laundry often and even doesn't clean bed cloth.**

가사 능력이 부족한 워커홀릭 여성.

A workaholic woman who are not good at housework

근데 이 분이 벌추 씨라고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This person didn't say this woman is Ms. Vertue.

그렇지만 이 추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벌추씨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But, what do you think of this deduction?

Can you tell us, Ms. Vertue?

VERTUE - Well, I did take the picture but... It's, it's more correct.

Would you like me to tell you what to do?

네, 제가 사진을 찍기는 했지만... 그게 더 맞다고 봐야죠.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해 드릴까요?

김성준: 이제 사진의 진실을 말씀을 해주시죠?

Now, please tell us the truth of the picture.

VERTUE – Yes, I can tell you about the photograph.

네, 사진에 대해 말씀 드릴게요

I do quite a lot of internet shopping
and I buy all my food online and things,
and sometimes I get it really wrong.

저는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합니다

온라인으로 음식이나 물건들을 사는데

가끔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And I was gonna make a nice flan for the family.

So I bought a tart case online to make the flan in

and that's what arrived which wasn't quite as big as I thought it's going to be clearly.

원래는 가족들에게 플랜 파이를 만들어줄 생각으로 플랜 파이를 만들 타르트 틀을 주문했는데

도착한 것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어요

사진을 보면 확실하죠

So this was me showing a picture to Steven

about another one of my online shopping failures

because that's the size of the flan that arrived.

그래서 제가 스티븐에게 이 사진을 찍어 보여주었습니다

도착한 타르트 틀 크기가 저 정도라면서

인터넷 쇼핑하면서 생긴 실수를 보여준 것이죠

And that's, it's actually not a sheet

it's just a thing you know a lounge

that children sit on a lot. That's why it's dirty.

그리고 사실 저 시트는 침대커버가 아닙니다

거실에 깔아두는 그런 시트인데

아이들이 그 위에 자주 앉아서 더러워진 것입니다

김성준: 알겠습니다. 놀이는 재미있었습니다.

추리가 얼마나 정확했는지는 여러분이 판단을 해보시고요.

Okay. It was an interesting game.

Please think yourself how much of their deduction was correct.

이제 다시 놀이에서 대담으로 돌아와서

진지한 질문 몇 가지만 드리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We will get back to our conversation.

Before we wrap up, I will give you some serious questions.

<셜록> 드라마, 드라마 <셜록>, 재미있습니다. 아주 흥미롭습니다.

Sherlock is absorbing and really interesting.

그런데 뭔가 전하고자 하는, 이 시대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나? 좀 궁금하거든요.

I would like to ask if there is any message that you want to give to this era.

어떤 메시지를 전하자는 의도가 있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Please explain us if there is any message that you wanted to deliver.

MOFFAT - Please watch our show.

우리 프로그램을 시청해달라는 것이죠

김성준: 아 뭐 그건 중요한 메시지고요.

Surely it is important message.

VERTUE – Subliminal.

잠재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지요

MOFFAT - I don't think it's got any message at all.

I think it's the drama as entertainment.

I suppose if you are wanting to extract something from it, it fetishizes cleverness and intelligence.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 드라마는 오락을 위한 것이죠

여러분이 이 드라마에서 뭔가 의미를 도출하고 싶으시다면 드라마의 영리하고 지적인 면에서 욕구를 충족하실 수 있을 겁니다

It makes all that a superpower.

And other thing it fetishizes is friendship.

So I, sweet reason and a good friendship is, those are good things to promote, I suppose.

이것들이 초월적인 힘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우정의 이야기에서도 만족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감미로운 지성과 멋진 우정이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But I can't say that we're delivering a mighty message to humankind or anything.

하지만 우리가 인류에게 거창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VERTUE - I think the thing is the writers of it,

you know, you and Mark are both huge fans of the show.

덧붙이자면, 셜록의 작가, 그러니까 제 남편과 마크 게티스 씨는

모두 셜록 홈즈의 열렬한 팬입니다

So I think therefore the show's made with passion as well.

And I think that's why it was, because you were fans of the show and that's why I think it also get so many fans.

그렇기 때문에 열의를 다해 셜록을 제작했다고 볼 수 있죠

우선 작가들부터 원작의 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청자들을 끌어 모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Because you make it with love, I suppose.

원작에 대한 애정이 있었으니까요

제 생각엔 말이에요

김성준: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Okay. This is the last question.

나오시는 연사 분들마다 이 질문을 드려야 하는데

Actually, I have to ask every speaker this question.

사실 저도 질문 드리면서 어떻게 대답하실 지 궁금하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일 거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I am curious how you may answer and I also think it would be a very difficult question.

긴장하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Pay attention and please listen carefully.

올해 서울디지털포럼의 주제가 혁신적인 지혜, 이노베이티브 위즈덤인데,

두 분이 생각하시는 혁신과 지혜의 관계는 뭐라고 보십니까?

The theme of this year's Seoul Digital Forum is 'Innovative Wisdom'.

What do you two think the relationship between innovation and wisdom?

MOFFAT - Ummm...

음....

김성준: 자신 없으시면...

If it is hard to answer...

VERTUE - This is your one.

당신이 대답해야 할 것 같은데요?

MOFFAT – But you wanna do it first?

I know you are back.

What's the concept of wisdom and innovation?

당신이 먼저 대답할래요?

당신도 여기 있는 거 아는데

지혜와 혁신의 개념이 무엇일까요?

Wisdom will tell you what you need.

Innovation provides what you need.

지혜는 현재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혁신을 통해 그걸 실제로 이뤄낼 수 있습니다

You know, if you could invent anything,

it would be tremendously clever to invent an invisible watch

but you wouldn't be able to tell the time.

무엇이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투명 시계를 발명하는 건 굉장한 혁신입니다

하지만 정작 시간을 볼 수는 없겠죠

Wisdom dictates what we should innovate

and innovate provides that. Innovation provides that.

지혜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혁신을 이끌어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혁신은 실질적인 변화를 제공하죠.

I would imagine it'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It's the best I can do.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지혜와 혁신의 관계입니다

제가 생각해볼 수 있는 건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If anyone wants to invent an invisible watch,

I think it would be great and I'd like to have one.

투명 시계를 만들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라고 평하고 싶고 저도 하나 가지고 싶군요

김성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드라마 <셜록>의

크리에이터 겸 프로듀서 스티븐 모팻씨와 수 벌추씨,

시대를 초월하는 스토리와 캐릭터에 대해서 많은 말씀 나눠 봤습니다.

**Thank you. We have talked a lot with the Creator and Producer of drama “Sherlock”,
Mr. Steven Moffat and Ms. Sue Vertue about the time-transcending story and character.**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lease give them a big hand. Thank you.

(53:01 끝)